

2×범·虎=네 호랑이 ‘만루 포효’



41세 최고령 KS 임창용

“내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1997년 고졸 3년 차의 투수는 팀의 4승에서 3경기의 세이브를 책임졌다. 그나마 한 경기는 진흥고 1년 후배였던 김상진이 9회를 1실점으로 책임지면서 타이거즈의 완투승이 기록됐다. KIA 타이거즈의 ‘만형’ 임창용의 이야기다.



20년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이 바뀌었다. 프로야구계에서 많은 스타가 탄생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시간. 하지만 오랜 시간, 먼 길을 돌고 돌아온 임창용은 그대로이다. 해태라는 이름이 KIA로 바뀌기는 했지만 지난 시즌 우여곡절 끝에 타이거즈맨으로 돌아온 그는 2017년 가을, 자신의 8번째 한국시리즈를 맞았다.

임창용은 지난 25일 1차전 등판을 통해 2003년 김정수(당시 SK·41세 3개월 1일)가 기록한 한국시리즈 최고령 경기 출장 기록을 41세 4개월 21일로 갈아치우며 역사의 산증인이 됐다. 앞으로도 임창용이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서게 되면 그는 또 다른 기록이 된다.

28일 3차전에서는 6-3 승리를 만드는 홀드를 기록하는 등 20년 전 옛날 호랑이는 등직한 만형으로 타이거즈 마운드에 섰다.

임창용은 “후배들의 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필승조로 큰 무대를 장식한 그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나도 믿기지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는 30대 초·중반에 야구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0대에 야구를 하는 걸 상상도 안 해봤다. 1년 1년, 매 경기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며 지난 20년을 이야기했다.

타이거즈 선수로 들어 올렸던 우승 트로피의 기억은 생생하다.

“1996년에는 한 타자만 상대했다. 안타를 맞고 내려온 기억이 난다. 긴장은 안 됐다. 1997년에는 멋모르고 재미있게 했었다. 그때는 야구가 그저 좋았다”며 타이거즈에서의 우승 기억을 떠올린 그는 “이번 한국시리즈는 조금 다르다. 팀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했다. 후배들 덕분에 이렇게 한국시리즈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고 말했다.

후배들과 우승 도전을 함께 한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임창용은 후배들의 길이 되고 싶다.

임창용은 “나를 계기로 많은 선수가 내 나이가 되도록 기량을 유지하면서 야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나이를 놓고 많이 의심했을 것이다. 야구 관계자들, 팬분들 그리고 선수들에게 내가 좋은 사례가 되고 싶다. 후배들이 내 사례를 바탕으로 그 뒤를 이어갔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다”고 말했다.

임창용은 “앞서 (삼성에서) 준우승도 해봤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할 게 아니었다. 차라리 한국시리즈에 나가지 않은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끝까지 이기고 올라가야 하는 게 한국시리즈다. 한편으로는 정규시즌 우승도 많은 의미가 있는 데 한국시리즈까지 이겨내야지 인정해주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다”며 “앞으로도 나의 야구는 계속될 것이다. 또 좋은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이범호·버나디나 “네가 MVP”

▲현종이 형은 대투수니까 = 아직은 경기 외적인 부분까지는 여유가 없는 임기영이다. 임기영은 지난 29일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선발로 나와 5.1이닝 무실점의 피칭을 하며 데일리 MVP에 선정됐다. 6회 1사에서 마운드에서 내려올 때 관중석의 큰 환호를 받았던 임기영은 (양현종처럼)팬들에게 모자라도 벗고 인사를 하지 그랬냐는 이야기에 “현종이 형은 대투수니까요. 아직 저는...”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유투데이 = 버나디나는 불꽃 타격으로 4차전까지 홈런 포함 15타수 8안타(타율 0.533) 6타점을 기록하며 연승행진의 주역이 됐다. 30일 5차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던 이수진, 버나디나와 인사를 하던 이범호가 “한국시리즈 MVP”라고 크게 외쳤다. 이에 버나디나는 “유 투데이(You today)”라고 답하며 이범호가 30일 경기의 MVP가 되기를 기원했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